

‘강경 모드’ 이재명... 민생 정당 선명성 강화

檢, 대선 당시 허위 발언 기소 이어 부인·아들도 전방위 수사
李 “정부, 정적 제거에 역량 소모 국민 삶 개선하는데 노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가 강해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생 이슈에 집중하며 여권을 향해 정치적 ‘로키’(절제된 행동)로 대응하던 이 대표가 이제는 강경 기조로 대어(對與) 전략을 수정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 대표의 최근 변화가 전략의 수정이 아닌 민생 대안정당으로서의 선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해석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이 대표로서는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의 행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달 초에는 검찰이 대선 당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경우 검찰이 사건 속치 사흘 만에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자택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원카드 유용 의혹 조사도 진행 중이고, 장남은 불법도박·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맞춰 이 대표의 메시지에도 날이 섰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정적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길지 않은 메시지였으나 자신을 향한 수사 당국의 칼날을 ‘정적 제거용’으로 규정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은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전북 김제시 김제농협 미곡창고를 찾아 도정된 쌀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껏 사법 리스크에 좀처럼 공개석상에서 대응을 하지 않았기에 이 대표의 발언은 더욱 이목을 끌었다.

이 같은 기조는 민생 이슈에서도 읽힌다.

지난 16일 전북 현장 최고위에서는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두고 “국민이 원하는 일에는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과 관련해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등 협치를 강조하던 이 대표가 다수 의석을 통한 힘의 우위를 이야기하고 나선 셈이다.

대표적인 강경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이 대표의 변화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 간 가파른 대치 형국을 점치기도 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 대표측 인사들은 최근의 변화는 강경 노선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민생 개선에 더욱 역량을 모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검경의 수사가 정치탄압이라는 입장과 기조는 일관된다”라며 “이에 대한 이 대표의 톤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 이슈와 관련한 발언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대표가 역설한 ‘강한 민주당’과 연결 지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강한 민주당이 되는 방법은 확실한

정책 주도권으로 대안 정당의 면모를 보이는 것”이라며 “최근의 언급은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단순히 여당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는 대안을 제시하고 수적 우위로 이를 관철할 수 있는 면모로 중국에는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표가 보여줄 당 운영의 무게 중심은 여전히 민생에 있다는 설명이다.

사법 리스크가 언제까지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선블리 전면에 나서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전남, 쌀 재고 전국 최다” 신정훈 “쌀값 폭락대책 마련을”

농협 재고쌀과 햅쌀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값 폭락이 우려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이 18일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농협 구곡(쌀) 재고는 31만3000t으로 전년(15만4000t) 대비 15만9000t(103%) 많은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이다.

올해 정부는 3차례에 걸쳐 37만t을 시장격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과잉으로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만9000t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북 6만6000t, 충남 6만t, 경북 4만t, 경기 2만6000t 순으로 많았다.

농협은 구곡 재고로 인한 손실을 총 2700억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경기 573억원, 전남 566억원, 충남 497억원, 전북 483억원, 경북 288억원 순으로 많은 상황이다.

농협은 매월 재고 소진물량을 감안할 경우 올해 10월 말 구곡 재고는 15~18만t, 2022년산 신곡은 33~39만t으로 총 50만t 이상의 공급 과잉을 예상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충분한 물량의 시장격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쌀값 폭락이 명약관화하다”며 “수확기 시장격리 의무화는 물론 선제적 쌀 생산조정과 농작물재배사업 등 강력한 쌀값지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전남도-美 메릴랜드주 교류 협력 확대 논의

김영록 지사-래리 호건 주지사 회담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6일 JW 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열린 ‘메릴랜드주 VIP 비즈니스 리셉션’에서 래리 호건(Larry Hogan) 주지사를 만나 두 지역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래리 호건 주지사와의 단독 회담에서 “올해로 자매결연 5주년을 맞아 두 지역 간 우의가 한층 돈독해지고 내실있는 교류 협력이 이뤄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래리 호건 주지사는 한국과의 경제협력과 투자 교역 확대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했다.

미국 동부에 위치한 메릴랜드주는 세계적 외과대 학인 존스홉킨스 의대가 있는 지역으로, 나주 출신 유미 호건이 퍼스트레이디로 있는 곳이다.

전남도와 메릴랜드주는 2013년 우호교류협정, 2017년 자매결연을 한 것을 계기로 통합의학, 정소년, 해양수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미국 내 의료용품 조달이 어려웠던 시기에 전남도가 메릴랜드에 의료용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5선’ 주호영 vs ‘재선’ 이용호

국민의힘, 오늘 원내대표 선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경선이 19일 5선의 주호영 의원과 재선의 이용호 의원 간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일부 진영(진윤석열)계 지지자를 받는 주 의원이 2020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데 이어 원내대표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출마가 거론되던 다른 중진의원들이 후보 등록 전 모두 접은 상태다. 이 때문에 집권여당의 새 원내 사령탑 선출이 사실상 경선 형식을 빌린 ‘추대’ 성격을 띠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주 의원을 추대하는 듯한 모양새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없지 않은 데다,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령의 의중)을 놓고도 해석이 분분해 대세론에 도전장을 던진 이 의원의 득표력 등 반전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5선의 주호영 의원은 보수정당 주류인 대구·경

북(TK) 출신의 최다선이다.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 시절 한 차례 원내지휘봉을 쥐었고 직전 비상대책위원장으로도 지명된 중량급 인사다.

이용호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합의추대가 불발된 뒤 주 의원 편에 선 일부 진영계 쪽에서 다른 후보군 인사들의 출마를 만류하며 교통정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이 ‘두번째 원내대표’ 도전에 나서면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만 수행하는 쪽으로 임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을 두고도 후보군 중진의원들과의 밀밀 협상의 결과물이란 해석이 나왔다.

주 의원이 권 원내대표의 잔여임기인 내년 4월까지만 원내사령탑을 맡는다면 21대 국회에서 1년 임기의 원내대표를 한 차례 더 뽑을 수 있다.

원내대표 후보군에 속한 중진의원들로서 ‘주호영 대세론’에 맞서기 쉽지 않겠다는 얘기도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호남고속도로 광주구간 5년 연속 낙제점”

조오섭 의원 국감 자료
4차로 서비스 등급 ‘F’

호남고속도로의 개통도 늦더니 교통정체를 개선하는 예산도 제대로 주지 않아 서비스마저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다. 호남고속도로 광주 구간(동광주~산월)이 전국 고속도로 서비스등급 평가에서 5년 연속 낙제점을 받고 있지만 교통정체 개선 예산에서는 흑자를 받고 있다.

특히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구간 확장공사는 13년째 타당성 조사가 발목을 잡고 있어 ‘개통 예산 지원 소극적-개통 후 예산 지원도 소극적’인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북구갑)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사료에 따르면 2021년 교통량 조사 결과 호남고속도로 동광주-용봉, 용봉-서광주, 서광주-동

림, 동림-산월 등 총 4개 구간의 서비스 수준이 도로별 적정교통량 6단계(A-F) 중 ‘F등급’을 받았다.

국토부가 제시하고 있는 고속도로 서비스등급 기준상 4차로는 일평균 8만대를 초과하면 F등급을 받는다.

광주를 관통하는 이 구간들은 2017년부터 매년 일평균 10만대 이상을 유지하다 2021년 들어 10만 7,546대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광주-동림 구간은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1차로당 일평균 교통량 상위 5개 구간’에 포함될 정도로 교통정체가 심각했다.

조오섭 의원은 “고속도로 교통정체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한다는 이유로 예산도 수도권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다”며 “도로공사는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만성적인 정체에 시달리고 있는 호남고속도로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